

대학생의 외식실태에 관한 연구

김 명 선

강원관광대학 관광호텔조리과
(2005년 8월 3일 접수)

A Study for Eating-Out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yung-Sun Kim

Department of Tourism Hotel Cuisine, Kangwon Tourism College

(Received August 3, 200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ating-out behavior patterns of university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610 university students(male : 41.5%, female : 58.5%).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The motivation of eating out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as the highest to take care of a meal, the second motivation was the social reason for the male student, but accommodate diversion for the female student. The time of eating-out was the highest from 31 minutes to 60 minutes. The eating-out cost of one time was highest from 5,000 won to 10,000 won. The eating-out cost of one month was the highest from 50,000 won to 100,000 won. The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were favorite of the Korean foods. The left-over foods were higher for female students compared with male students. The style of left-over foods was highest for Korean foods. The payment style was high for the most student by turns. The frequency of eating-out was high for male students compared with female students as below (lunch>dinner>breakfast). The criteria for the selecting eating-out level was appeared as below (Taste>Cleanliness and hygiene>Kindness and good service>Price>Atmosphere>Variety of menu>Promptness of service>Convenient location>Quantity of food>Reputation). Both students liked hot tastes.

Key Words : eating-out, intake, meal, favorite, left-over food

1. 서론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는 국민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식생활의 간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외식빈도와 외식인구 또한 커다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외식비가 총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년에는 4.1%, '97년에는 10.4%, '03년에는 12.7%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 배경에는 소득증대 및 평준화,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도시화의 진전, 젊은 연령층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 가치 상승, 핵가족화,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외식 업체의 등장, 다양한 메뉴의 개발 등의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²⁾.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서 특히 대학생은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짝 짜여진 고교생활로부터 벗어나 갑자기 자유로워진 생활로 바뀌면서 불규칙한 식사 생활, 부적당한 간식 섭취와 더불어 잦은 결식과 외식의 빈도가 높아지는 연령층이며, 간편성 위주의 식습관으로 편이 식품을 자주 사용하게 되어 식습관의 조화와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다. 식습관의 조화와 균형이 흐트러지면 신체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도 해친다. 또한 특히 여대생들은 잦은 결식과 외식에 대한 관심 및 올바르지 못한 영양지식으로 체중조절을 위해 지나친 결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3,4)} 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식습관은 과거 식습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의 식습관으로 이어지게 되며, 다음 세대를 생산할 신체에 악영향을 주어 결국 국민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5,6)}고 한다. 그리고 외식업체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의 문제는 식량자원의 문제 뿐 만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식행동의 일반적 특성(외식동기, 외식 시간, 한 끼 비용, 한 달 비용, 좋아하는 음식, 남기는 음식 등), 외식 빈도, 식당 선택의 기준, 좋아하는 맛 등을 조사하여 외식업계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올바른 외식 습관의 확립을 위한 영양교육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10월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20부(회수율 95.3%)였으며 이 중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61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들³⁻⁷⁾을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한 달 용돈, 가족수, 거주형태 등)과 외식 행동의 일반적 특성(외식동기, 외식 시간, 한 끼 비용, 한 달 비용, 좋아하는 음식, 남기는 음식 등), 외식 빈도, 식당 선택의 기준, 좋아하는 맛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방법

모든 조사 자료는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Chi-square 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군 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41.5%, 여학생 58.5%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출생지는 농어촌(41.1%), 대도시(30.5%), 중소도시(28.4%)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평소에 식생활에 관심이 낮은 학생은 31.5%, 조금 있는 학생은 61.3%, 많이 있는 학생은 불과 7.2%이었다. 바람직한 식생활은 국민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달 용돈은 20-40만원 미만(54.6%), 20만원 미만(33.4%), 40만원 이상(12.0%)의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Sex	Male	253(41.5)
	Female	357(58.5)
Age	10-19	175(28.7)
	20-29	417(68.4)
	≥30	18(3.0)
Main region of growth	Big city	186(30.5)
	Small · medium city	173(28.4)
	Farm · Sea village	251(41.1)
Interest of dietary attitude	High	44(7.2)
	Moderate	374(61.3)
	Low	192(31.5)
Monthly money for personal use	<200 thousand won	204(33.4)
	200~400 thousand won	333(54.6)
	> 400 thousand won	73(12.0)
Type of residence	Home with parents	248(40.7)
	Boarding-house	33(5.4)
	Boarding with cooking	265(43.4)
	Dormitory	64(10.5)
Family style	Nuclear	462(75.7)
	Extended	148(24.3)
Total	610(100.0)	

거주형태는 자취(43.4%), 자택(40.7%), 기숙사(10.5%), 하숙(5.4%) 순으로 원거리 학생들은 자취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자택이외의 학생 대다수는 거주지가 수도권학생이며, 가족 수는 핵가족이 75.7%, 대가족이 24.3%를 차지하였다.

2. 외식행동의 일반적인 사항

남녀 대학생의 외식행동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외식동기, 외식 시간, 한 끼 외식비용, 한 달 외식비용, 좋아하는 음식, 남기는 음식 형태, 비용 부담자에 관한 것은 <Table 2>와 같다.

외식 동기는 남녀 대학생 모두 한 끼 식사 섭취를 위해서(36.4, 37.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남학생은 사교적인 목적(30.4%), 여학생은 기분전환(32.8%)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Koo⁷⁾의 보고에서는 사교적인 목적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1회 외식 시 소비시간은 남녀 대학생 모두 31~60분(52.6, 58.3%), 30분 이하(29.2, 19.3%)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1회 외식 시 비용은 5,000~10,000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 외식비용으로 남학생은 100,000~150,000원(28.5%), 50,000~100,000원(24.9%), 200,000원 이상(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30,000원 이하(40.3%), 50,000~100,000원(25.5%), 30,000~50,000원(12.3%) 순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 달 외식 비용이 높았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선호하는 외식은 남녀 대학생 모두 한식(59.3, 4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25.2%)이 남학생(9.9%) 보다

<Table 2> General eating out behavior

N(%)

Variables	Sex		Total	Significance	
	Male	Female			
Motives	Special occasions	9(3.6)	18(5.0)	27(4.4)	$\chi^2=34.23^{***}$ (df=4)
	Accommodate diversion	45(17.8)	117(32.8)	162(26.6)	
	To savor the taste	30(11.9)	40(11.2)	70(11.5)	
	Social reasons	77(30.4)	48(13.4)	125(20.5)	
	To take care of a meal	92(36.4)	134(37.5)	226(37.0)	
Time spent (min.)	>30	74(29.2)	69(19.3)	143(23.4)	$\chi^2=10.67^*$ (df=3)
	31~60	133(52.6)	208(58.3)	341(55.9)	
	61~90	21(8.3)	48(13.4)	69(11.3)	
	91<	25(9.9)	32(9.0)	57(9.3)	
One time cost (won)	>3000	23(9.1)	118(33.1)	141(23.1)	$\chi^2=60.45^{***}$ (df=3)
	3000~5000	69(27.3)	104(29.1)	173(28.4)	
	5000~10,000	127(50.2)	117(32.8)	244(40.0)	
	10,000<	34(13.4)	18(5.0)	52(8.5)	
monthly cost (won)	>30,000	7(2.8)	144(40.3)	151(24.8)	$\chi^2=147.15^{***}$ (df=5)
	30,000~ 50,000	27(10.7)	44(12.3)	71(11.6)	
	50,000~100,000	63(24.9)	91(25.5)	154(25.2)	
	100,000~150,000	72(28.5)	42(11.8)	114(18.7)	
	150,000~200,000	37(14.6)	15(4.2)	52(8.5)	
	200,000<	47(18.6)	21(5.9)	68(11.1)	
Preferred food style	Korean	150(59.3)	169(47.3)	319(52.3)	$\chi^2=65.15^{***}$ (df=6)
	Western	9(3.6)	33(9.2)	42(6.9)	
	Japanese	25(9.9)	9(2.5)	34(5.6)	
	Chinese	23(9.1)	6(1.7)	29(4.8)	
	Fast food	25(9.9)	90(25.2)	115(18.9)	
	Buffet	3(1.2)	6(1.7)	9(1.5)	
	Others	18(7.1)	44(12.3)	62(10.2)	
left-over foods	Always leave	0(0.0)	9(2.5)	9(1.5)	$\chi^2=101.79^{***}$ (df=2)
	Leave sometimes	45(18.0)	201(56.3)	246(40.5)	
	Do not leave	205(82.0)	147(41.2)	352(58.0)	
Style of left-over foods	Korean	132(52.2)	140(39.2)	272(44.6)	$\chi^2=52.17^{***}$ (df=5)
	Western	30(11.9)	36(10.1)	66(10.8)	
	Chinese	9(3.6)	78(21.8)	87(14.3)	
	Japanese	21(8.3)	12(3.4)	33(5.4)	
	Snack bar	20(7.9)	46(12.9)	66(10.8)	
	Buffet	41(16.2)	45(12.6)	86(14.1)	
Who pays the check	One person	49(19.4)	65(18.4)	114(18.8)	$\chi^2=18.68^{***}$ (df=2)
	Pay dutch	33(13.0)	97(27.4)	130(21.4)	
	By turns	171(67.6)	192(54.2)	363(59.8)	
Total	253(100.0)	357(100.0)	610(100.0)		

p<0.05, ***p<0.001

레스토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남녀 대학생 모두 한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⁷⁻¹⁰⁾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식 시 남기는 음식에 관해서는 남학생은 남기지 않는다(82.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때때로 남긴다(56.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외식 시 남기는 음식 형태는 남녀대학생 모두 한식(52.2, 39.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남학생은 뷔페(16.2%), 여학생은 중식(22.8%)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음식 쓰레기의 문제는 식

량자원이나 환경문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음식 쓰레기 없는 메뉴의 구성이 필요하며, 특히 한식의 경우는 잔반양이 많으므로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식단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뷔페의 경우 먹을 만큼 본인이 가져와 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져와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식사 매너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식비 지불 형태는 남녀 대학생 모두 번갈아 부담(67.6, 54.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남학생은 한사람이 부담(19.4%), 여학생은 각자 부담(27.4%)이 높았으며, 집단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3. 외식 빈도

외식 빈도를 남녀 성별과 거주형태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조식은 1주일에 3-4회 이상 외식 하는 학생 (11.1, 5.0%)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77.5, 84.6%)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p>0.05), Lee¹¹⁾의 보고에서는 아침에 자주 외식을 하는 학생이 4.4%인데 반하여 본 조사에서 여학생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남학생은 11.1%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식은 1주일에 3-4회 이상 외식 하는 학생(46.6, 36.4%)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17.0, 34.5%)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석식은 1주일에 3-4회 이상 외식 하는 학생(35.2, 15.1%)과 거의 하지 않는 학생(9.9, 30.5%)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거주형태별로 보면 조식을 1주일에 3-4회 이상 외식하는 학생은 자취가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식을 1주일에 3-4회 이상 외식하는 학생은 자취 45.7%, 자가 43.1% 순으로 높았으며, 석식을 1주일에 3-4회이상 하는 학생은 기숙사 34.4%, 자취 26.0%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집단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이상의 결과에서 매끼 식사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별로는 자취 학생이 높았으며, 점심>저녁>아침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Lee¹¹⁾가 보고한 대학생의 외식 빈도에서 점심>저녁>아침 순으로 많이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외식하는 하는 학생이 약 50%로 외식 빈도가 증가해 가는 현대의 영양교육은 가정에서의 식사관리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외식 시 음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식사관리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외식 장소 선택 기준

남녀대학생의 외식 장소 선택 기준을 5점 척도도 측정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남학생은 음식의 맛>위생 및 청결성>종업원들의 친절과 서비스>음식의 가격>점포내의 분위기>메뉴의 다양성>음식제공의 신속성>편리한 위치>음식의 양>점포의 명성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위생 및 청결성>음식의 맛>종업원들의 친절과 서비스>음식의 가격>점포내의 분위기>메뉴의 다양성>음식제공의 신속성>편리한 위치>음식의 양>점포의 명성 순으로, 남학생은 맛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반하여 여학생은 위생 및 청결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NamKung¹²⁾의 연구에서 위생 및 청결성, 음식의 맛, 종업원들의 친절이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고려되었고, Woo⁸⁾의 연구에서도 점포의 명성과 음식의 양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외식 업체에서는 음식의 양이나 업소의 명성보다는 음식의 맛, 위생 및 청결성 및 종업원들의 친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선호하는 맛

남녀대학생들의 선호하는 맛을 5점 척도도 측정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남녀 대학생 모두 매운맛(3.78, 3.87)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이 단맛(3.16, 3.41)으로 나타내었다. 짠맛은 남학생 (2.58)이 여학생(2.22)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신맛은 남학생(2.92) 보다 여학생(3.24)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쓴맛은 남학생 (2.05)이 여학생(1.77)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p>0.001). 기름진 맛은 남학생(2.39)이 여학생(2.20) 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p<0.05).

<Table 3> The frequency of eating out

N(%)

Variables	Sex		Type of residence				
	Male	Female	Home with parents	House of relative	Boarding with cooking	Dormitory	
Breakfast	Over 3 or 4 times/week	28(11.1)	18(5.0)	12(4.8)	0(0.0)	34(12.8)	0(0.0)
	Once or twice/week	14(5.5)	16(4.5)	7(2.8)	0(0.0)	23(8.7)	0(0.0)
	Once or twice/month	15(5.9)	21(5.9)	9(3.6)	0(0.0)	24(9.1)	3(4.7)
	Scarcely intake	196(77.5)	302(84.6)	220(88.7)	33(100.0)	184(69.4)	61(95.3)
	Significance	$\chi^2=8.38^*$ (df=3)		$\chi^2=52.08^{***}$ (df=9)			
Lunch	Over 3 or 4 times/week	118(46.6)	130(36.4)	107(43.1)	3(9.1)	121(45.7)	17(26.6)
	Once or twice/week	47(18.6)	47(13.2)	27(10.9)	6(18.2)	51(19.2)	10(15.6)
	Once or twice/month	45(17.8)	57(16.0)	48(19.4)	9(27.3)	33(12.5)	12(18.8)
	Scarcely intake	43(17.0)	123(34.5)	66(26.6)	15(45.5)	60(22.6)	25(39.1)
	Significance	$\chi^2=23.50^{***}$ (df=3)		$\chi^2=34.89^{***}$ (df=9)			
Dinner	Over 3 or 4 times/week	89(35.2)	54(15.1)	49(19.8)	3(9.1)	69(26.0)	22(34.4)
	Once or twice/week	63(24.9)	89(24.9)	53(21.4)	6(18.2)	85(32.1)	8(12.5)
	Once or twice/month	76(30.0)	105(29.4)	79(31.9)	15(45.5)	69(26.0)	18(28.1)
	Scarcely intake	25(9.9)	109(30.5)	67(27.0)	9(27.3)	42(15.8)	16(25.0)
	Total	253(100.0)	357(100.0)	248(100.0)	33(100.0)	265(100.0)	64(100.0)
Significance	$\chi^2=54.16^{***}$ (df=3)		$\chi^2=32.11^{***}$ (df=9)				

*p<0.05, ***p<0.001

<Table 4>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staurant

Variables	Sex		Total	F-value
	Male	Female		
Taste	4.72±0.54*	4.76±0.51	4.75±0.53	0.91
Cleanliness and hygiene	4.68±0.58	4.85±0.44	4.78±0.51	18.47***
Kindness and good service	4.56±0.61	4.68±0.55	4.63±0.58	6.87*
Price	4.14±0.77	4.32±0.84	4.25±0.81	7.58**
Atmosphere	4.11±0.94	4.30±0.77	4.22±0.85	7.17**
Variety of menu	4.01±0.90	4.30±0.84	4.18±0.88	17.16***
Promptness of service	3.97±0.82	4.27±0.77	4.14±0.80	21.40***
Convenient location	3.94±0.89	4.14±0.84	4.06±0.86	7.97**
Quantity of food	3.79±0.77	4.01±0.90	3.92±0.85	10.64**
Reputation	3.32±0.92	3.65±0.87	3.51±0.90	20.10***

*Mean ±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p<0.001

<Table 5> The favorite tastes of the subjects

Variables	Sex		Total	F-value
	Male	Female		
Sweet	3.16±0.94*	3.41±1.03	3.30±1.00	9.24*
Salty	2.58±0.94	2.22±0.99	2.37±0.98	20.02***
Sour	2.92±0.91	3.24±1.10	3.11±1.04	13.79***
Hot	3.78±0.93	3.87±1.02	3.83±0.98	1.16
Bitter	2.05±0.78	1.77±0.72	1.89±0.76	20.16***
Greasy	2.39±0.86	2.20±0.89	2.28±0.88	6.64*

*Mean Standard Deviation
 *p<0.05, ***p<0.001

Koo²⁾의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맛에 대한 선호도로 매운맛 > 단맛 > 신맛 > 짠맛 > 기름진 맛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외식 행동의 일반적 특성(외식동기, 외식 시간, 한 끼 비용, 한 달 비용, 좋아하는 음식, 남기는 음식 등), 외식 빈도, 식당 선택의 기준, 좋아하는 맛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학생들의 외식 동기는 한 끼 식사 섭취를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남학생은 사교적인 목적, 여학생은 기분 전환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외식 시 소비시간은 31~60 분이 가장 많았으며, 1회 외식비용은 5,000~10,000원이 가장 높았으며, 1개월 외식비용은 50,000~100,000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녀대학생 모두 한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외식 시 음식을 남기는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으며, 남기는 음식 형태는 한식이 가장 높았고, 외식비 지불 형태는 남녀 대학생 모두 번갈아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높았다.

2. 외식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점심>저녁>아침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식 장소의 선택 기준은 남학생은 음식의 맛>위생 및 청

결성>종업원의 친절과 서비스>음식의 가격>점포내의 분위기>메뉴의 다양성>음식제공의 신속성>편리한 위치>음식의 양>점포의 명성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위생 및 청결성>음식의 맛>종업원의 친절과 서비스>음식의 가격>점포내의 분위기>메뉴의 다양성>음식제공의 신속성>편리한 위치>음식의 양>점포의 명성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맛을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은 위생 및 청결성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내었다.

4. 선호하는 맛은 남녀대학생 모두 매운맛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 단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외식의 동기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가 가장 높으므로 외식업체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외식업체내의 분위기와 맛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영양을 고려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하며, 한식의 경우는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문제 식단 등 다양한 방안의 연구가 시급하며, 대학생들의 식생활도 점차 외식이 증가해 가는 추세이므로 영양을 고려한 식사의 필요성에 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외식업체는 현대의 소비자에게는 음식의 양이나 업체의 명성보다는 맛이나 위생 및 청결성에 더 주력해야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외식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식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한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한민수. 정서와 맛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 외식산업의 구조. 한국식문화학회지 9(2): 217-230, 1994
- 2) 모수미.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 120-128, 1986
- 3) Lee YN, Choi H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9(1): 1-10, 1994
- 4) Kim HS, Chung CE.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2): 147-157, 2001

- 5) Roh JM, Yoo YS.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 J Korean Home Ecos Asso 27(2): 65-74, 1989
- 6) Roh JM, Yoo YS.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I). J Korean Home Ecos Asso 27(4): 51-58, 1989
- 7) Koo, J.Y. The study on preference eating-out form of collage student. Sejong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2
- 8) Woo KJ, Yang HS, Rho JO.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2): 235-245, 2005
- 9) Pyean MN.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out of university student in Jeon Buk province.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2
- 10) Kwon SH.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ating-out behaviors of industrial worker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6): 501-513, 2003
- 11) Lee YM, Lee KY, Chang HK.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317-324, 1996
- 12) NamKung S.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residents in the Seoul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5(1): 75-86, 1995